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복미 】

### 미국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평가

□ 지난 17일 미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.4% 상승하면서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고 전년동기대비로는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1.6%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,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가능성 논란이 야기됨.

- 금융위기 이후 미 연방준비위원회는 1990년대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을 야기할 수 있는 디플레이션을 경계해 왔으며, 디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위해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해 왔음.
- 그러나 음식료품 가격과 유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, 음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 또한 2009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짐.
- 근원 인플레이션 구성항목 중 항공운임·대중교통 요금의 상승은 유가상승이 다른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며,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다른 제품에 대한 가격 상승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 비용견인 인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음.

□ 그러나 버냉키 연준의장을 비롯한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재화가격 상승에 비해 서비스가격 상승은 미미하며, 미국 경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.

- 재화가격은 음식료품 가격과 유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2.2% 상승한 반면, 2000년에서 2008년 평균 3.4%의 상승률을 보였던 서비스 가격은 1.2% 상승하는데 그치는 등 부문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임.
- 경기침체, 고실업으로 인해 서비스 가격의 상승세는 높지 않은 상황이며, 미국 민간소비의 67%가 서비스에 대한 소비이기 때문에 재화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.
- 연준은 지난달 회의에서 소비자 물가 전망을 1.3%에서 1.5%로, 근원 물가 상승률은 1.0%에서 1.3%로 상향조정하였으나 이는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%를 하회하는 수준임.

(LA Times 등, 2/18)